

書 評

- Bao Ninh. 1991. *Noi buon chien tranh* (*The Sorrow of War* translated by Phan Thanh Hao. 1996. New York: Riverhead Books).
- Robert S. McNamara.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1995.
- William J. Duiker. *Sacred War: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a Divided Vietnam*. New York: McGraw-Hill, Inc. 1995.

베트남 전쟁을 다루는 세 가지 입장

한도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998년 7월에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연구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약 430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베트남 연구의 붐을 실감케 하였다. 이 대회에서 테일러(Keith W. Taylor)는 미국내 베트남 연구 동향을 보고하면서 “제도나 주제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는 베트남 연구의 역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내에서 쏟아진 연구들은 “에피소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냉전기 동안에 이루어진 미국내 베트남 연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그는 1990년대의 새로운 연구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테일러가 지적하였듯이 ‘하나의 베트남’, ‘베트남의 본질적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 내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베트남 간의 20년 전쟁은 연구 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냉전 기간 동안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20년간의 갈등과 전쟁은 단순한 과거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민들의 생활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연구 주제이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베트남 모두 20년 전쟁에 대한 연구는 회피하고 있다. 베트남을 찾은 많은 미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이 전쟁을 잊었다’라고 한다. 혹자는 한국인이 일본인을 증오하는 데 반해 베트남인들은 미국인을 증오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인은 아량이 넓다고도 말한다. 이것은 피상적 관찰일 뿐이다. 듀이커가 지적하고 있듯이(p.270), 전후 복구를 위해 베트남이 직면한 어려움이 너무 크

고 전후 복구의 성공을 위해 외부세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급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사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을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세 편의 전쟁 관련 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책들은 베트남 전쟁을 다루는 세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듀이커의 책을 제외하면 두 책은 본격적인 연구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베트남 전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케네디 정부와 존슨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의 책은 회고록이지만 연구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제시가 방대하면서도 정확하고 일관된 서술체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기간의 중요한 사건들 예컨대, 톤킨만 사건, CIA의 개입, 국방부 백서(The Pentagon Papers), 크리스마스 북폭, 미국내 반전 운동 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 제시보다도 이 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베트남전 수행을 정면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맥나마라는 책 서문에서 미국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terribly wrong”)고 선언하였다. 완벽을 추구하던 유능한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좀처럼 인정하기 힘든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곧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책 전체에 걸쳐 맥나마라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파견, 북 베트남에 대한 공습 등이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작용하였던 당시 지정학적 지식, 냉전적 사고 등을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에서 맥나마라는 11가지 면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 잘못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주요한 것을 보면, 서방세계에 대한 북베트남의 위협을 과도하게 평가한 것, 베트남인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대한 과소평가, 베트남의 역사문화에 대한 무지, 현대적 군사기술에 대한 과신,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부재 등이다. 다음 문장은 맥나마라의 주장을 간결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남부 베트남의 상실이 서방 세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평가하였으며 남부 베트남이 구제되려면 남부 베트남인 스스로 그 전쟁을 승리해야만 한다는 근본 원리를 고수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 기본 진리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의 군사력은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치질서와 정치 안정을 대신할 수 없다 (McNamara, p.333).

맥나마라는 미국이 1963년경에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맥나마라는 미국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로 군사 전략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의 전쟁을 미국의 전쟁’으로 확전시킨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 민족의 자결권, 독립, 통일 등에 대해서 베트남 민족이 아니라 미국이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맥나마라는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미국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

문에서 자신의 변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책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 독자들은 맥나마라의 입장에 끌려갈 것이다. 책에서 맥나마라는 자신은 군사작전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정치적 해결(평화 협상)이라는 카드를 강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전쟁의 비극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맥나마라의 입장과 달리 듀이커(William J. Duiker)는 베트남의 시각에서 항불 전쟁, 항미전쟁(이른바 베트남 전쟁)을 통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듀이커가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국-베트남간 전쟁에 대해 많은 책들이 서술되었지만 베트남 측 입장에서 쓰여진 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을 직접 다루지 않는 글이라 해도 냉전기에 쓰여진 베트남 연구는 대부분 베트남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베트남의 특징 또는 베트남사회의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전통과 대비해 본다면 듀이커의 책은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베트남 연구, 특히 베트남 전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맥나마라의 책에는 미국군대, 미국정부, 남부베트남 정부 및 장군들이 주로 등장한다.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나 북부 베트남, 호치민 등은 그 배경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의 미국측 장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반해 듀이커는 베트남 민족주의와 혁명 운동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문제를 넘겨 받을 때는 이미 공산주의 세력이 베트남 전역에 걸쳐 정통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미국의 대 베트남 정책, 베트남 전쟁 정책의 패배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맥나마라의 책에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듀이커 책에서는 시원하게 풀린다. 예컨대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개입에도 불구하고 왜 남부 베트남에는 호지명을 대적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가? 남부 베트남 정부는 왜 허약한가? 미국은 왜 전쟁을 베트남인의 전쟁으로 만드는데 실패하였는가? 등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맥나마라의 책이 정치 군사적 사건의 흐름에 대한 서술이라면 듀이커의 책은 역사사회학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커는 중국과 소련의 호지명 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인의 식민지 해방운동, 베트남 독립동맹(Viet Minh 越盟)의 활동, 프랑스 격퇴 이후 북베트남의 사회개혁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설명에서도 듀이커는 군사적 측면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 Mat Tran Dan Toc Giai Phong Mien Nam Viet Nam)은 공산주의자만이 아니라 반체제인사들, 비공산 진보세력, 종교인, 소수족, 애국정당 등 광범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듀이커는 NLF내의 북베트남 노동당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동일시 하지 않는다. 즉 NLF에는 공산주의자 뿐 아니라 광범한 사회 계층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면에서도 NLF는 북 베트남 당국과 상당한 긴장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NLF는 전면 봉기를 통한 혁명을 주장하는 반면에 북베트남 당국(노동당)은 신중론이나 평화협상을 중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듀이커는

NLF를 북부 베트남 당국의 노선과 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정책에서 남베트남 정부와의 차별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

듀이커는 전쟁을 서술할 때는 베트남에 대해 동정적이었지만 통일 이후의 사태 전개, 사회주의화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다. 통일 이후 남쪽의 NLF 세력이 북베트남의 조국전선으로 흡수되는 과정, 남쪽의 인민 혁명당이 북베트남의 노동당과 합당하여 베트남 공산당으로 변화하는 과정, 남쪽에서 급속히 추진되는 사회주의화 등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1980년대 후반에 전개되는 사회경제쇄신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듀이커의 책은 베트남 전쟁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 베트남 전쟁과 현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듀이커는 이 과정에서 베트남내의 새로운 전쟁 담론을 소개하고 있다.

닌(Bao Ninh)은 새로운 전쟁 담론을 이끌고 있는 선두 주자이다. 닌의 책은 연구서가 아니고 미국-베트남간 전쟁 때 저자가 북베트남의 정규군으로서 참가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베트남내에서 이러한 소설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베트남 사회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맥나마라의 책이나 듀이커의 책이 전쟁의 정치경제적 과정을 다룬 것이라면 닌의 책은 전쟁의 생활사 또는 심정사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듀이커의 에필로그에서 간단히 소개되었듯이 닌의 소설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전 시기의 베트남내 전쟁소설은 베트남인의 영웅적 투쟁을 묘사해 왔다. 전쟁은 민족해방을 위한 성전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닌의 소설은 전사들의 모습을 영웅으로 묘사하지도 않고 전쟁을 민족해방의 성전으로 묘사하지도 않는다.

맥나마라의 책이나 듀이커의 책에는 통일된 주체로서의 주인공이 있다면 닌의 책에는 그러한 주인공이 없다. 미국정부, 미국군대, NLF, 베트남, 공산당 대신에 분열된 주인공, 유평과 대화하는 주인공, 불가촉천민으로 되어 버린 계대군인으로서의 주인공 등 통상적인 소설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소설의 전개나 구성도 일관성 없이 여러개의 에피소드, 현재와 과거, 꿈과 현실 등이 착종해 있다. 전쟁의 생활사를 다루기에는 이러한 구성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닌은 말하고 있다.

많은 소설들처럼 이 소설에도 로맨스가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로맨스는 해체되고 파괴된 것이다. 아름다운 로맨스는 전쟁 이전의 과거 시간에 잠깐 존재하고 전쟁 속의 로맨스는 추한 모습이다. 주인공의 애인은 주인공이 입대하기 위해 떠나는 화물차에 같이 올라탔으나 미공군의 공습이 있을 때 그녀는 열차의 남자 승객들로부터 윤간을 당한다. 적군이 아니라 동포로부터의 윤간이다. 이것은 ‘민족해방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에는

1) NLF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촌(ap chien luoc) 파괴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어울리지 않는 추한 모습들이다. 저자는 이러한 추한 모습을 통해 ‘민족해방성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전쟁 속에서는 자유와 독립이 오히려 파멸된다는 것을 애인의 윤간, 애인의 매춘 생활, 애인과의 이별 등을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감한 전사들이 아니라 탈영을 꿈꾸며 마약에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 유령의 소리에 쫓기는 모습 등을 서술하고 있다. 한 탈영병은 주인공에게 “나는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 매일 나는 내가 죽는 꿈을 꾸고 있어. 내 영혼은 내 육체로부터 헤엄쳐 나와서 흠혈귀가 되어서는 사람의 피를 빨아”라고(p.20) 말한다. 그리고는 고향의 어머니를 찾아가야 한다면서 탈영을 시도한다. 이 탈영병은 정글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사이공 해방의 날도 열광과 기쁨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공 공항에 뿔구는 죽은 여성의 나체를 서술함으로써 해방의 날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리고 있다. 공항 바에서 벌어지는 슬판도 축제가 아니라 슬꾼들의 난장판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묘사 사이 사이로 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의 생활, 파괴된 가족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전쟁의 슬픔에 대한 풍부한 묘사에 비하면 ‘성전의 적’들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의 군대(특공대) 등이 적군으로서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맥나마라의 책이나 듀이커 책과 견줄 만하지 않다.

위의 세 가지 책은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세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닐이 소설에서 제기한 전쟁의 생활사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해 두고 이 세 권의 책과 관련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해 몇 가지 따져 보고 싶다.

1. 베트남전쟁인가 미월(美越)전쟁인가

맥나마라가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베트남 전쟁은 1965년경부터는 미국의 전쟁으로 변화하였다. 수십만의 미국군이 남부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 세력 및 남파된 북베트남 정규군과 대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의 내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 전쟁이 아니라 미국-베트남간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방침은 “정치적 심리적 목적상, 전쟁은 베트남인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맥나마라에 의하면 미국은 이 전쟁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전쟁으로 확대될 무렵 완전 철수하는 것이 옳았다.

1965년 이전에도 미국은 허약한 남부 베트남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내정 간섭을 하였다. 오 딘 디엠(Ngo Dinh Diem) 정권이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자 미국 CIA, 사이공 주재 미국 대사관, 남베트남 주재 미군 지휘관(군사고문관) 등을

통해 남 베트남 군부내 쿠데타를 중용하는 등 이미 단순한 원조자의 지위를 벗어나 베트남 정치에 개입하고 있었다. 오 딘 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자 남베트남에는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였다. 마침내 우옌 칸(Nguyen Khanh)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가 일어나자 미국은 남부 베트남의 정권 안정을 위해 맥나마라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맥나마라로 하여금 새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맥나마라는 남베트남 곳곳을 우옌 칸 장군과 함께 다니면서 새 정권에 대한 지지를 다짐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남부베트남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베트남간 전쟁의 참모습을 보여 줄 뿐이었다.²⁾

맥나마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인의 전쟁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와 주는 것이다’(pp. 75-6)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즉 가능한 대로 이 전쟁을 공산베트남과 자유베트남 간의 갈등으로 묶어 두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야만 미국의 개입 명분이 서고 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한국군의 존재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맥나마라, 듀이커, 닐 세 사람의 책 어디에도 한국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이 전쟁은 미월(美越) 전쟁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2.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사회적 요인

맥나마라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오류를 전문가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다.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위 정책 당국자 가운데 베트남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냉전기에 해외지역연구가 급속히 발전되었고 베트남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소 의외의 지적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만일 베트남의 민족주의, 베트남의 사회 구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을까? 미군 5만여 명, 월남인 100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 맥나마라는 명백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듀이커는 ‘미국인의 무지’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된 사회구조적 원인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전선을 지도한 공산당의 지도능력,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 항불투쟁을 통한 공산주의 세력의 민족 정통성, 정치적 투쟁(선전 및 국제협상)과 군사 전략의 적절한 배합 등을 승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남부 베트남 또는 민족주의자(부르주아지) 베트남 세력은 허약하였는가에 질문으로 나가고 있다. 민

2) “이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 속에 남 베트남 정권은 국민들로부터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뿐이라는 견해를 각인하였다 (McNamara, p.112).

족 부르주아지가 허약한 이유를 듀이커는 유교 전통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유교가 상공인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베트남 지식인들은 서구 자본주의를 증오했다고 한다. 또한 유교의 집단주의(collectivism)가 맑시즘의 집단주의와 선택적 친화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지침은 되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테일러가 지적하고 있듯이 베트남에 대한 고정관념, 즉 유교, 마을 사회, 공동주의 등은 베트남 사회의 한 측면만을 말해 줄 뿐이다.

3. 배반의 연속

베트남 전쟁은 20세기의 전쟁 가운데 가장 긴 전쟁이었다. 베트남은 2차대전 직후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식민지 종주권을 회복하려는 프랑스와 독립하려는 베트남간의 전쟁은 결국 1954년의 디엔 비엔 푸 전투로 종결되었다.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며 근대세계를 열었던 프랑스가 결국 베트남의 자유, 평등, 박애를 부정하였다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념의 배반을 말해 준다. 프랑스가 떠나간 다음 미국이 '자유 수호'라는 이념을 내걸고 베트남전에 참여하였다. 미국 혁명의 모토인 독립, 자유, 행복은 지금도 베트남 정부의 공식 슬로건이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사람은 이 구호를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문서에도 항상 독립(Doc Lap), 자유(Tu Do), 행복(Hanh Phuc) 세 단어가 찍혀 있다. 그렇지만 미국 독립의 이념은 베트남 주민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근대 혁명의 이념을 프랑스와 미국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듀이커의 책에 약간 언급되어 있다. 맥나마라의 책은 암시적으로만 다를 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강대국만이 근대 혁명의 이념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억압 아래 민족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경험을 가진 한국 역시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하였다. 민족주의 이념의 배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민족주의 이념의 배반은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도 일어났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이다.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들과 격렬히 투쟁하였던 베트남은 이제 침략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침공의 이유는 '문명화의 임무'(mission civilisatrice) 그것이었다. 자기 민족의 자결권,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들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그토록 많은 희생을 했던 베트남인이 다시 이웃 나라를 침략했으니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듀이커는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을 베트남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바오 닌은 이 아이러니에 대해 그의 소설에서 반전운동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 청년들이 전쟁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쟁을 좋아한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니다. 최근의 전쟁(미국과의 전쟁-- 필자주)은 보통 국민들에게 천년 동안 지속될 만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Bao Ninh, p.75).

참 고 문 헌

Keith W. Taylor. "Vietnamese Studies in North America". 베트남학 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8년 7월).